



보도 일시	2023. 3. 15.(수) 14:30 (행사종료시)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3. 3. 15.(수) 10:00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 박영두 (044-200-2123)
		담당자	중령 조창모 (044-200-2137)

방산 산업,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실현할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

- 한 총리, 방산업체(한화 에어로스페이스) 방문 및 관계자 격려 -

- 새로운 수출 효자종목으로 부상한 방산업체 및 관계자들의 노고 격려
-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협력 당부, 정부도 지원을 다할 것
- 4월 출범을 앞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통합법인에 대한 축하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(수),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(경남 창원)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* 참석 : 신범철 국방부 차관, 강환석 방사청 차장, 박완수 경남 도지사,
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사, 곽종우 부사장, 이광민 전무 등

○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,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○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, 천무, 레드백 등 각종 장갑차, 천마 등 방공체계는 물론, 항공엔진부품, 우주발사체 등 지상에서 항공우주까지 전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방산업체로 오는 4월 정밀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방산을 합병한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.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3사업장을 방문해 공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각종 무기/장비를 직접 살펴보았으며,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의 의미를 강조하고, 이를 위한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.

- 한 총리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법인 출범을 통해 세계적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, 뛰어난 기술과 납기 준수,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
- 아울러, 방산수출 확대는 방산기업의 기반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,
 - 방산산업 미래먹거리 6대 신산업 선정, 향후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등 방산수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- 다만, 방산수출 확대는 업체 단독 또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, 민관군이 함께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, 업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,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